



'지금 여기'를 생각한다면 다낭이다낭 베트남 다낭·호이안 여행기

이영은 前 아리랑국제방송 뉴스센터 PD / 사진 : Ryan Kim

겨울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서울은 하루 최저기온이 15도
까지 떨어졌다. 매서운 찬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밤이 가
장 긴 동지가 가까워지고 있다.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고, 해
가 짧아진 덕에 겨울은 쉽게 우울해지는 계절이다. 이럴 땐
따뜻한 나라의 따스한 태양 빛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래
서 이번에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다낭과 호이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이 있다. 한국인들의 다낭 관광 수요
가 많다 보니, 휴가철이면 다낭 거리에 한국인들이 워낙 많
아서 생긴 재미있는 말이다. 이 말이 보여주듯, 베트남은 저
렴한 물가와 5시간 정도의 비교적 짧은 비행시간으로 한국
인들에게 접근하기 좋은 나라다. 특히 다낭과 호이안은 5자
로 길게 뻗은 베트남의 남부에 자리 잡고 있어 1, 2월 기준
으로 평균 최고기온 26도의 온화한 날씨가 특징이다. 그뿐
만 아니라 지금은 비가 내리는 날이 적은 건기이기 때문에
더욱 여행하기 좋다.



다낭 시내



다낭(Da Nang)

다낭은 호찌민, 하노이와 함께 베트남의 3대 도시다. 어떤 여행잡지는 다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한다. 그만큼 교통과 기간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다낭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10분 정도 소요된다. 웬만한 곳은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하다. 그랩(Grab)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요금은 기본 거리 이동 시 한화 2~3천 원 정도로 무척 저렴한 편이다. 차량을 부를 수도 있고, 혼자인 데다 짐이 없는 편이라면 오토바이 라이딩 셰어도 가능하다.



다낭 한강의 드래곤 브릿지



다낭성당의 낮과 밤 전경



다낭 미케 해변



콩카페 1호점

나의 일정은 새벽에 도착해 1박을 한 뒤 호이안으로 출발, 호이안에 며칠 머물렀다가 다시 다낭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다낭은 대표적인 관광도시답게 좋은 숙소가 많았고 가격 또한 만족스러웠다. 호텔 기준 거의 모든 곳이 숙박에 조식을 포함해서 제공하니 다양한 맛집 여행을 하고 싶다면 참고해야 한다.

다낭에도 한강이 있다. 진짜 이름이 Hàn River다. 다낭시를 가로지르는 이 강에는 다낭의 랜드마크인 드래곤 브릿지가 놓여 있고, 강을 따라 많은 음식점과 시장, 카페, 빌딩들이 늘어서 있다. 나는 한 시장과 베트남의 유명한 커피 체인 콩카페(Cong Caphe), 다낭박물관, 그리고 테마파크 바나힐 썬월드(Ba Na Hills Sun World)에 다녀왔다.

Da Nang



다낭 한 시장 내부 전경

한 시장은 남대문 시장과 비슷한 느낌이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온갖 의류와 잡화, 식품 등을 판매한다. 재미있었던 점은 가게 점원들이 대부분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는 것이었다. 계산뿐만 아니라 신발사이즈를 찾아주고, 전통의상 아오자이 주문을 받아주는데 여기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잠시 헷갈렸을 정도였다.

쇼핑을 끝내고 콩카페에 들렀다. 다낭 시내에는 세 곳의 콩카페 지점이 있다. 한 시장 근처에 있는 1호점은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지만 그만큼 관광객으로 늘 북적이는 곳이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발품을 팔아 상대적으로 넓고 여유로운 3호점으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카페 쓰어다는 베트남식 연유커피로, 핀이라는 베트남 특유의 드리퍼로 내린 진한 커피에 연유를 첨가한 것이다. 더운 날씨 탓에 변질되기 쉬운 우유 대신 연유를 넣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거의 모든 카페나 호텔 조식 뷔페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처음엔 너무 진한 단맛과 씹쓸함에 놀랄 수 있지만, 얼음이나 물, 우유를 조금 넣어서 마시다 보니 여행 일정 내내 아침마다 꼭 찾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가장 자주 생각나는 것 중 하나이다.



카페 쓰어다



콩카페 3호점

베트남 현지에서 먹는 쌀국수가 궁금했다. 길거리에 작은 의자를 두고 앉아 그릇을 손에 들고 쌀국수를 먹고 있는 모습을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더러 보았다. 아쉽게도 다낭은 관광도시라 그런지 그런 노점은 잘 보이지 않았다.

쌀국수를 먹기 위해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라는 여행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찾아간 식당. 가장 기본적인 소고기 쌀국수와 스프링롤 튀김인 짜조, 후에(Hue) 쌀국수를 먹었다. 쌀국수엔 여러 가지 허브와 라임, 숙주, 양념 등을 올려 먹는데 베트남 남부와 북부가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의외로 고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내가 먹은 후에 쌀국수는 납작한 면이 아닌 둥글고 조금 두꺼운 면을 사용했다. 베트남 고추기름을 넣어 살짝 매콤하고 얼큰한 국물 맛에 한국인들이 딱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닝글로리와 소고기 쌀국수



후에 쌀국수



분짜



Broad Sharing 나의 취미

다낭박물관은 베트남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독립과 전쟁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건물 입구 옆에는 월남전에서 사용되었던 미군 헬리콥터 잔해가 전시되어 있는데, 외관에 난 총격의 흔적이 전쟁 당시의 금박함을 잘 설명해 준다.



다낭박물관 전시물

여행잡지나 사진으로 접한 유명한 골든 브릿지를 보기 위해 바나힐을 찾았다. 다낭 시내에서 바나힐까지는 차로 3~40분 정도 걸린다. 나는 여행 액티비티를 제공하는 서비스 클룩(Klook)을 통해 이동편 차량과 바나힐 선월드 입장권을 구매했다.

바나힐은 바나산 위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지배받고 있던 식민지 시대, 고도가 높아 시원하고 경관도 뛰어났던 이곳을 프랑스인들이 휴양지로 개발했다고 한다. 1,400m가 훨씬 넘는 높은 산을 매일같이 오르내리며 프랑스인들의 유흥을 위해 착취됐던 베트남인들은 독립 이후 프랑스인들의 흔적을 지우고 대형 테마파크를 만들었다. 와인과 음식을 이고 힘들게 산을 올랐던 기억 때문일까? 지금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바뀌었다.



바나힐의 조형물



바나힐 메인광장

바나힐 케이블카



바나힐 켄월드엔 각각의 주제로 꾸며진 시설과 거리, 조형물과 놀이기구가 있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았다. 특히 유럽거리가 유명한데, 내가 유럽 여행을 온 것인지 베트남에 온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거리에는 아코디언 연주자와 탱고 댄서들이 흥을 돋우었다.



바나힐 트램



바나힐 유럽거리



바나힐 전경

골든브릿지를 보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비가 억수로 퍼붓기 시작했다. 바나힐은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만큼 날씨가 시시각각 변한다. 특히 우기에는 한번 비가 쏟아지면 언제 그칠지 모른다. 때문에 비옷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테마파크 건물 내부 편의시설에서도 비옷이나 우산을 팔지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나는 건물 내부에서 비를 피하다가 비옷을 들고 다니며 판매하는 직원을 발견해 겨우 구매할 수 있었다.

그렇게 비옷을 입고 비장한 각오로 비를 뚫고 마주한 골든브릿지. 비구름으로 가려진 탓에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예뻐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운치도 있었고 신비로워 보였다. 비록 내 곁은 피난민이 따로 없게 되었지만 볼만 했다.



바나힐의 골든브릿지



바나힐에서 셀피



바나힐에서 셀피



호이안(Hoi An)

호이안 올드타운은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선호도 높은 15대 관광지로 꼽히기도 했다. 다낭에서 차로 3~40분 정도의 거리이며,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했던 곳이다. 아시아의 전통적인 항만 무역도시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곳으로 일컬어지는 호이안은 낮이건 밤이건 아름답다. 하지만 최소 이틀은 호이안에 머무르면서 밤의 호이안을 더 느긋하게 즐기는 것이 좋다.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 좋게 길이 잘 되어있는 거리엔 중국, 일본, 유럽풍의 예스러운 건물과 사찰들이 거리를 빼곡히 장식한 등불과 어우러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호이안 올드타운 거리



나는 국가 불문하고 항만도시 특유의 다양성과 개방적인 느낌을 좋아한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다양하며 신기한 물건도 많기 때문이다. 호이안도 그랬다. 하지만 그중 호이안이 가장 사랑스러운 곳이었다. 특히 밤이면 거리마다 골목마다 켜진 등불이 나를 어린아이처럼 설레게 했다.

해상 무역이 활발했던 옛날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등불은 처음엔 둥근 보름달 같은 모양이었지만, 점차 마름모꼴 형태를 갖춘 호이안만의 특별한 모양이 되었다고 한다.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등불을 걸고, 강물에 꽃 모양의 등을 띄워 보내기도 한다. 매달 음력 14일 저녁에는 한 시간씩 모든 전기 조명을 끄고 오직 등불로만 길을 밝히는 등불 축제라고도 하니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올드타운의 밤 분위기

마름모꼴의 등불





밤에 인기인 투본강가의 조각배 체험



투본강을 따라 조성된 거리 곳곳에는 중국의 영향이 짙은 사찰과 부담스럽지 않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낮은 건물들이 관광객들을 반기고 있다. 호이안은 메인 스트리트와 야시장 거리, 올드타운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올드타운 구역이 상술했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그만큼 가장 볼거리가 많고 아름다운 곳이다. 중간중간 카페나 찻집에서 지친 다리를 쉬어가며 걷다 보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단, 예쁜 거리에 넋을 잃는다 해도 길을 건널 땐 조심해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은 베트남에서는 길을 건널 때 머뭇거리기보단 오토바이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면 바로 건너는 것이 낫다.



올드타운의 사원



호이안에서 먹었던 반세오



벽에 주차된 오토바이들



맑은 바닷물이 인상적이었던 안방 해변

베트남의 해변은 어떨까? 호이안에서 차로 15분가량 달리면 갈 수 있는 안방 해변으로 향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바닷물도 맑고 푸르러서 쉬어가기 좋았다. 잘 알려진 다낭의 미케 해변보다 나는 안방 해변이 더 예뻐다. 미케 해변은 길고 모래사장이 넓은 데다 시내에 인접해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즈넉하고 맑은 물빛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기기에 안방 해변이 낫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라고 했다. 매 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장소와 시간을 충실히 살아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중심을 잃고 매 순간을 놓치거나 쫓기기만 할 때, 한 번쯤은 쉬어가도 좋지 않을까? 🌊

